2019 독서 콘퍼런스
2019 READING CONFERENCE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19 READING CONFERENCE

2019 독서 콘퍼런스
READING

쓰기는 어떻게 읽기를 만들어 내는가?

1. 디지털 시대의 읽기와 쓰기
2. 읽고 쓰고 만들고, 청춘의 독립출판
3. 장 · 노년층의 쓰기와 읽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

8.30. FRI
13:00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제 및 세부 프로그램

주제 쓰기는 어떻게 읽기를 만들어 내는가?

사회자 : 김은하(책과교육연구소 대표)

시간		콘퍼런스	비고
12:50~13:00	10분	접수 및 행사안내	출판진흥원
13:00~13:05	5분	장내정리 및 개최 선언	사회자
13:05~13:10	5분	김수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축사	출판진흥원
13:10~14:00	50분	(발제1) **이재현 교수** (발제2) **윤동희 대표** (발제3) **오선경 대표**	
14:00~14:15	15분	휴식 시간 / 사전질의 작성(청중) 및 게시	포스트잇, 필기구
14:15~14:45	30분	**(토론) 발표내용에 관한 토론**	사회자
14:45~15:15	30분	**청중과의 대화(열린 소통)** – 사전질문에 관한 자유토론	사회자
15:15~15:25	10분	마무리 및 폐회 선언	사회자

CONTENTS

주제발표

1. 디지털 시대의 읽기와 쓰기 03
발표자 : 이재현(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2. 읽고 쓰고 만들고, 청춘의 독립출판 19
발표자 : 윤동희(북노마드 출판사 대표)

3. 장 · 노년층의 쓰기와 읽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 25
발표자 : 오선경(성공독서코칭센터 대표)

2019 독서콘퍼런스

2019 READING CONFERENCE

주제발표

디지털 시대의 읽기와 쓰기

주제발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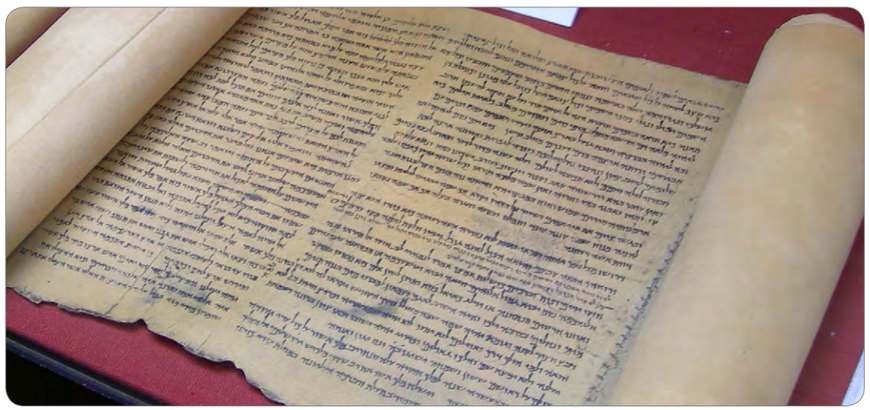
이재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책의 변천
점토판에서 디지털 책까지

점토판 clay tablet

파피루스 두루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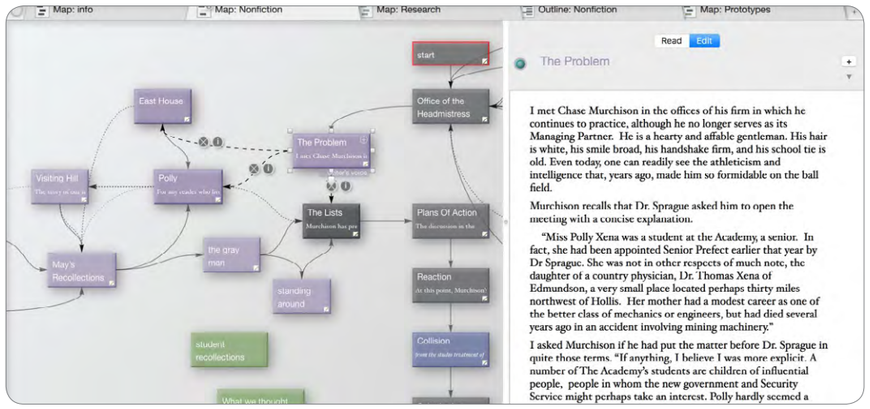


코덱스 – 1. 채색서적 illuminated manuscripts

코덱스 – 2. 인쇄책 printed books

디지털 책 – e-Book

디지털 책 – 1. 하이퍼텍스트



디지털 책 – 2. 증강 텍스트 augmented text

디지털 책의 특징

1. 인쇄책의 재매개

– 재매개 remediation (Bolter & Grusin, 1999)

"하나의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의 인터페이스, 재현 양식,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차용 borrowing하고 나아가 개선 improvement하는 미디어의 논리"

– 차용: 책이라는 용어, 페이지 관습, 선형성, "문자적 마인드"

– 개선: 검색, 링크, 멀티미디어

2. 페이지의 가상화 (Manovich, 2001)

– 미디어 다중성

– 혼종화: 시간적, 공간적 조직화

– 확장성: 하이퍼링크

3. 텍스트의 플랫폼 이동과 축적 가능성

– 플랫폼 이동: 내용과 물질성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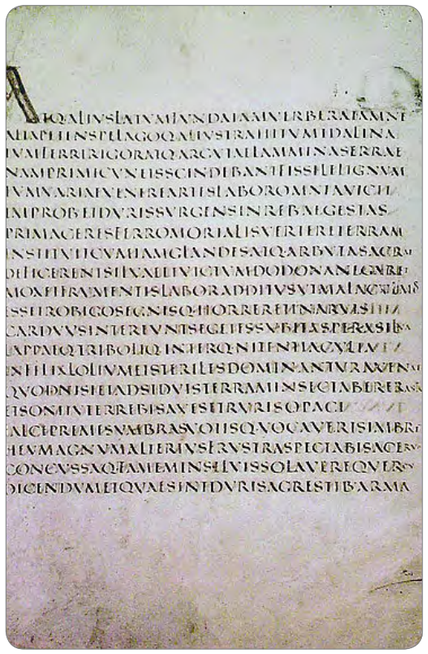
– 축적 가능성: 내용의 상세함(요약성)이 다른 버전들 (Engelb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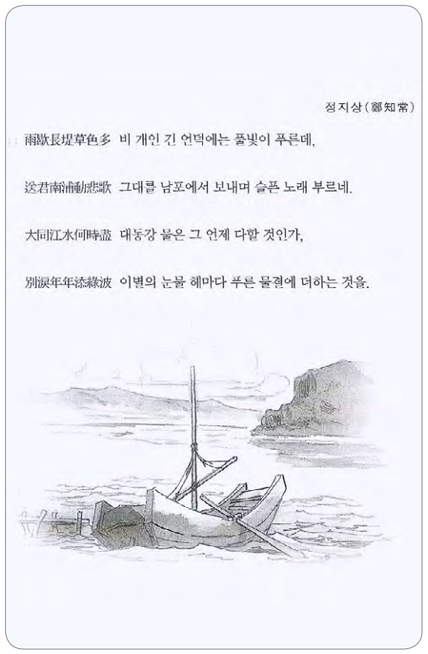
* 페이지 page – "책의 영원한 유전자"인가?

읽기 reading
음독과 묵독에 이어…

전통적 읽기 관습
1. 음독 vocalized reading

- 구술성의 전통
- 느리다, 노력이 요구된다, 외부지향적이다
- 텍스트: Scriptura Continua





정지상(鄭知常)

雨歇長堤草色多 비 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送君南浦動悲歌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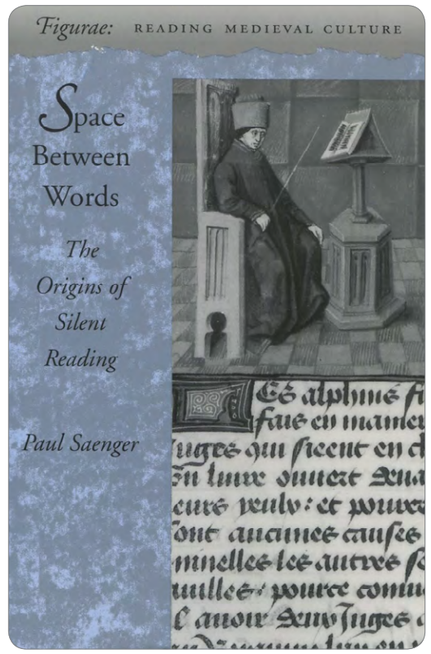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別淚年年添綠波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전통적 읽기 관습
2. 묵독

- 문자성의 전통
- 빠르다, 쉽다, 내부지향적이다
- 텍스트: 띄어쓰기, 문장 표식 등
- 15세기 이후 보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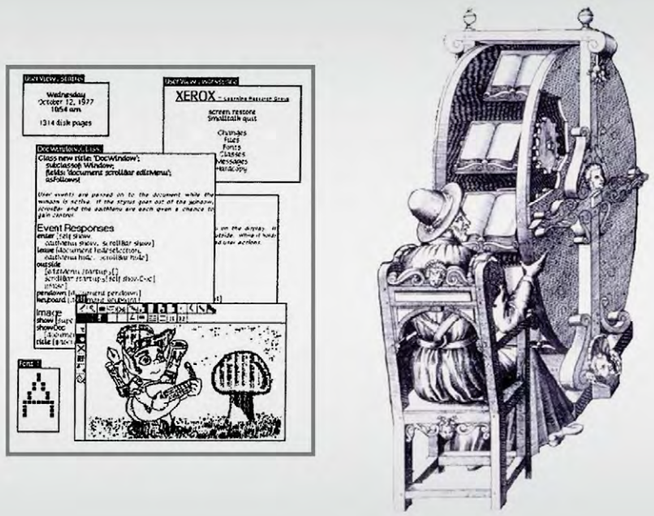
– 더 중요한 “또 다른 혁명” (Chartier, 1989)



새로운 읽기 관습

1. 다중 읽기 multiple rea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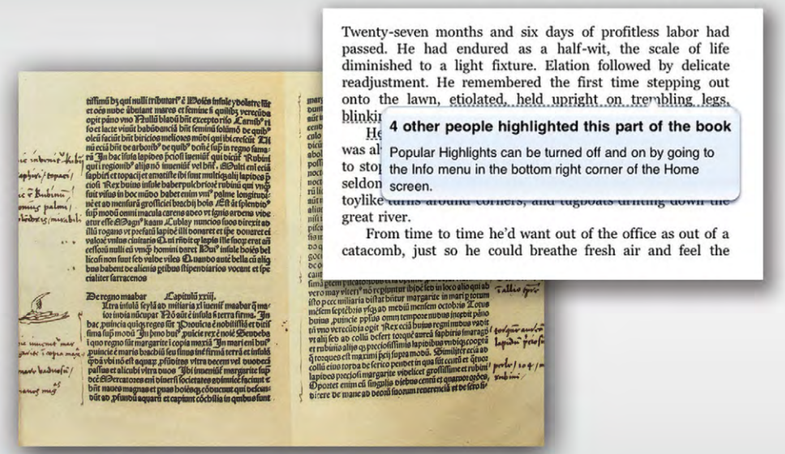
- 피상적 읽기
- 비선형적 읽기
- 하이퍼주목 읽기 hyperattentive
- 촉각적 읽기



새로운 읽기 관습

2. 소셜 읽기 social rea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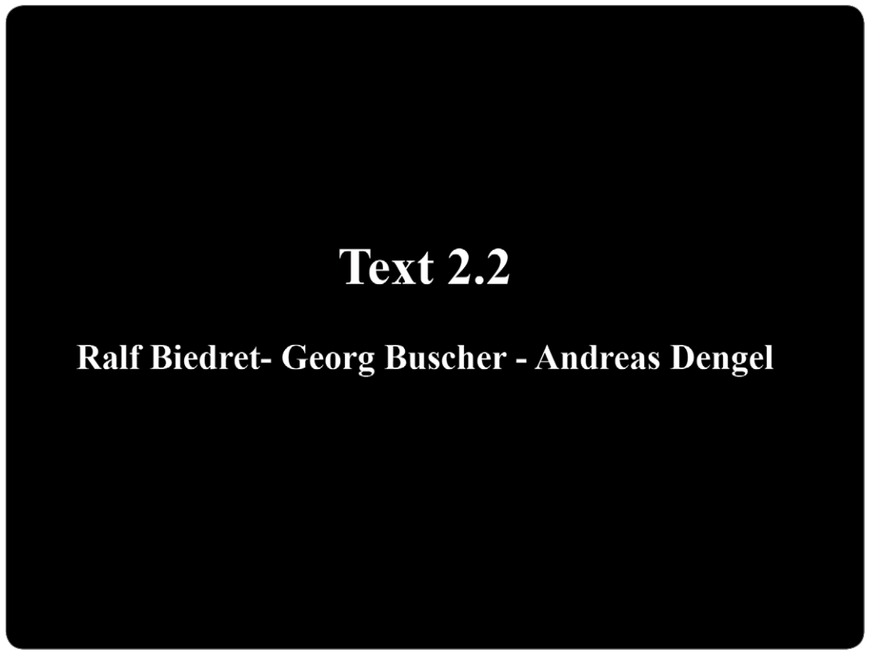
- 읽는 동안 정보 및 의견 교환
- 텍스트 네트워크와 인간(독자) 네트워크의 결합
- Amazon Kindle 2.5 – “Popular Highlights”



새로운 읽기 관습

3. 증강 읽기 augmented reading

- 증강 텍스트 읽기
- 세 번째 읽기 관습: 음독 ⋯› 묵독 ⋯› 증강 읽기
- 독일 DFKI의 텍스트 2.0 https://www.youtube.com/watch?v=8QocWsWd7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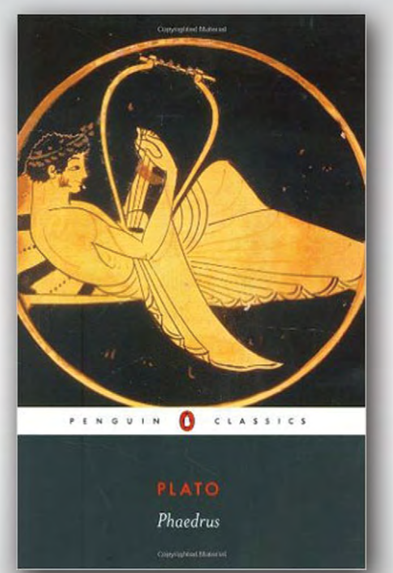


쓰기 writing

타자기, 하이퍼텍스트,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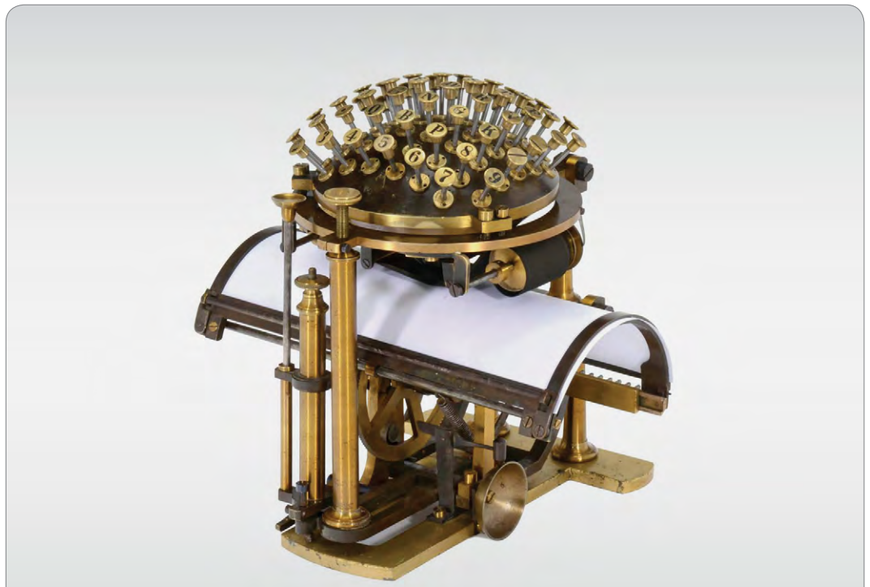
글쓰기의 시작

- 소크라테스의 글쓰기 비판
  - 플라톤 〈파이드로스〉 중 테우트 신화
  - 영혼 없는 글쓰기, 기억 능력의 약화
- 플라톤의 쓰기 인식 – “pharmakon”
  - 내재 기억 anamnesis
  - 외재 기억 hypomne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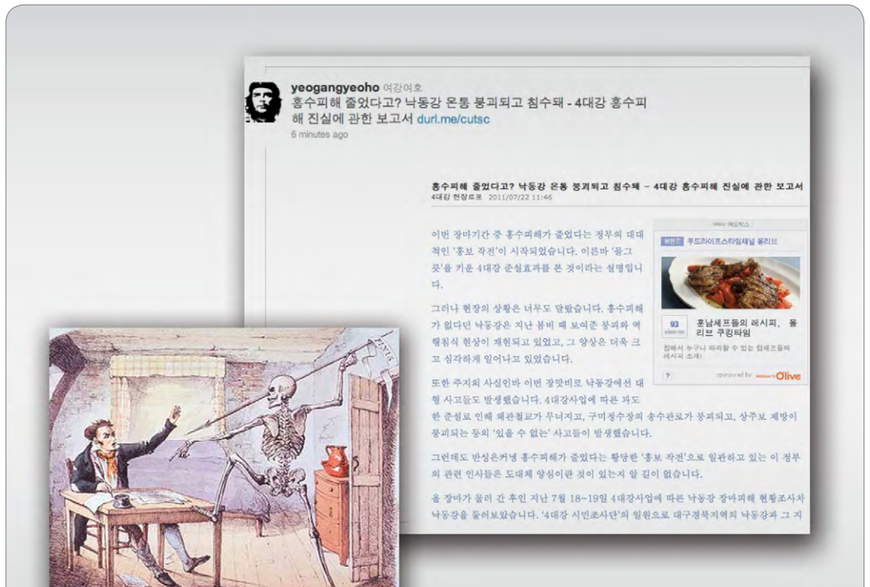
글쓰기 – 타자 typewriting

- 글쓰기의 기계화 mechanization
- 하이데거의 기계적 글쓰기 비판 (Heidegger, 1942–3)
  - 쓰기의 표준화
  - 개성의 상실
  - 글쓰기에서 “손의 소외”
- 니체의 타자기 (Kittler, 1986)
  - 타자기를 사용한 최초의 철학자
  - 양식의 변화: “전신 스타일”



글쓰기 – 하이퍼텍스트

- 하이퍼텍스트
  - 단위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로 구성된 텍스트
  - 정보 조직화의 보편적 구조
- 하이퍼텍스트 글쓰기
  - 링크: “환유”와 “은유”의 글쓰기
  - 텍스트의 확장성, 개방성
  - 단일 선형성의 파괴: 다선형성
  - “저자의 죽음”



글쓰기 – AI 글쓰기

- 사례
  - 기자, 시인, 시나리오 작가, 채터, 번역가 등
  - RNN(LSTM) 등 인공신경망 기반
- 글쓰는 기계
  - 글쓰기 주체
    : 인간 ⋯› (지능형) 기계
    : "주체의 죽음"(?), 창발
    : 혼종형 텍스트
    : 기존 텍스트들에서 재조합
    : 텍스트의 정체성 변화

포스트–텍스트 (text 3.0)
: "오레오 쿠키 구조" (이재현)

몇 가지 이슈들

디지털 시대의 읽기와 쓰기

1. 책이란 무엇인가?
– "책다움 bookness"
– "페이지"는 책의 고유한 유전자인가?
2. 새로운 읽기 관습이 등장하는 것인가?
– 묵독이 계속 (존중)될 것인가?
– 눈과 손: "복합 감각"의 읽기
– 읽기와 뇌: 성찰(사고 능력) (Carr, 2010)
3. 새로운 쓰기 관습이 등장하는 것인가?
– 지능형 기계와 글쓰기: AI–aided writing
– 글쓰기와 창의성
4. 이제 읽기와 쓰기에 기계 조작능력이
요구되는 것인가?

Opening the window of his cell, he pointed to the immense church of Notre Dame, which, with its twin towers, stone walls, and monstrous cupola forming a black silhouette against the starry sky, resembled an enormous two-headed sphinx seated in the middle of the city. The archdeacon pondered the giant edifice for a few moments in silence, then with a sigh he stretched his right hand toward the printed book that lay open on his table and his left hand toward Notre Dame and turned a sad eye from the book to the church.

"Alas!" he said, "This will destroy that!"

– Victor Hugo, Notre Dame de Paris, 1482

2019 독서콘퍼런스

2019 READING CONFERENCE

읽고 쓰고 만들고, 청춘의 독립출판

주제발표 2

윤동희

북노마드 출판사 대표

읽고 쓰고 만들고, 청춘의 독립 출판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번호가 두 자리가 된 십여 년간 세계가 잃은 것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었다. 스마트폰의 순항은 종이책과 등을 맞대고 있다. 사람들의 일상에서 책은 추방되었다. 나와 같이 책을 만드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대한 애증의 양가감정을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했다. 종이와 디지털의 융합은 대세다. 아니, 과거와 현재, 현실과 가상현실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무시간성과 무공간성의 시대에 종이와 디지털을 나누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스마트폰, 전자책, 아마존, 넷플릭스…… 책을 둘러싼 매체와 플랫폼의 변화, 책보다 재미있는 콘텐츠의 향연,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제나 독서를 특별시하는 사고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세태에서 책과 독서에 관한 인류의 갈망은 종언을 고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책을 만드는 이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달라진 매체 환경에서 사람들은 어느 시대보다 '읽고 쓰고' 있다. 때론 긴 글로, 때론 짧은 글로, 때론 댓글로, 때론 해시태그로……. 출판사를 통하지 않아도 직접 쓰고, 만들고, 유통시키는 독립 출판 신(scene)이 만들어졌다. 기성 작가들과 출판사들이 감지하지 못한 삶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가능하게 해준 독립 출판의 유통은 도시 구석구석에 들어선 독립 서점이 도맡는다. 뚜렷한 중심축 없이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몫을 다해왔던 제작자, 독자, 독립 서점의 각개전투는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에너지로 응집되었다. 다행인 걸까, 불행인 걸까. 시대는 저성장, 장기침체로 접어들었다. 꼰대, 미투, 페미니즘, 젠더, 우울, 퇴사 등 세상을 견디는 힘으로 쓴 독립 출판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에 독자들이 마음을 열고 있다.

바야흐로 '독립 출판'의 시대다. 개인이나 그룹이 기획, 원고, 편집, 디자인, 제작, 유통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독립 출판은 자유롭고 개성적인 내용과 형식이 특징이다.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고백하고, 기성 출판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콘텐츠로 채워나가는 독립 출판의 변화는 끝이 없다. 북노마드 역시 독립 출판의 색다른 시선과 다양한 시도를 바라보는 일을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책을 만들며 〈북노마드 출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4~5주에 걸쳐, '책방 연희' '어쩌다 책방' '스너글북스' '북바이북' 등 주요 독립 서점과 협업하는 출판 수업을 통해 출판 이론을 공부하고, 출판 기획–편집–제작 과정을 나누고 있다.

그림 1. '독립 출판' 시대다. 개인이나 그룹이 기획, 원고, 편집, 디자인, 제작, 유통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독립 출판은 자유롭고 개성적인 내용과 형식이 특징이다. 북노마드는 독립 출판의 색다른 시선과 다양한 시도를 바라보는 일을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책을 만들며 〈북노마드 출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독립 서점과 협업하는 출판 수업을 통해 출판 이론을 공부하고, 출판 기획–편집–제작 과정을 나누고 있다.

북노마드는 2015년 12월, 국내 독립 서점을 소개하고 책방지기와의 대화를 담은 『우리, 독립책방』을 출간했다. 이후 국내 독립 출판 작가들과의 대화를 담은 『우리, 독립출판』, 국내 독립 공방 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한 『우리, 독립공방』, 동아서점(속초), 바람길, 밤수지맨드라미(제주 우도), 아마도책방(남해), 어쩌다책방, 책방서로, 책방연희, 취미는독서(부산), 하얀정원 등의 활동을 담은 『서점의 일』,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6명의 독립 출판 작가들(김규림 김진아 김현경 백세희 서귤 유재필)을 소개한 『우리, 독립출판 2』를 펴냈다. 모두 〈북노마드 출판 수업〉의 결과물이다.

『우리, 독립출판』(2016년)과 『우리, 독립출판 2』(2019년) 사이의 3년 동안 독립 출판은 장르의 다양화, 기존 출판과의 협업, 사회적 반향에 이은 베스트셀러 진입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겨났다. 독립 출판은 에세이 장르가 강세다. 시, 시와 에세이를 결합한 단상집, 생활 만화, 독립 잡지 등이 새로운 출판을 갈망하

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다. 독립 출판 키워드는 우울증과 정병러(SNS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칭하는 용어)가 대세인 가운데, 자아, 개인, 관계, 불안, 결핍, 일상, 청춘, 퇴사, 혼자 살아남기, 요가, 여행, 책, 페미니즘 등이 독립 출판의 스토리텔링을 이루고 있다. 일상의 소확행부터 삶의 절망과 희망까지. 독립 출판의 스토리텔링은 지금–여기 대한민국의 초상이다.

북노마드의 '우리, 독립' 시리즈는 출판과 매체를 둘러싼 급속한 변화 속에서 '독립'과 '1인'에 주목한다. 독립 출판은 시대를 간파하는 제목과 표지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등 디자인과 제작 방식을 보는 재미가 상당하다. 모든 것이 파편화되고 해체되는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손으로 쓰고 그리는 것의 의미를 곱씹게 만든다. SNS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파급시키는 브랜딩도 신박하다. 자신의 콘텐츠를 독립 출판으로 펴낸 계기, 책을 내기 전과 후의 변화, 꾸준히 독립 출판을 해나가는 힘, 작업 일정과 출판 노하우, 독립 서점 입고 에피소드는 우리 시대 청춘의 삶과 곧바로 이어진다.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그 여백에 깃든 이야기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놓기. 독립 출판 작가들에게서 나는 '재미'라는 삶의 원동력을 발견한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건 다한다"는 김규림 작가의 고백처럼, 독립 출판물에서 우리는 희망 없는 시대를 '견디는'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실천하는 자유로움, 그러면서도 읽고 싶고 갖고 싶게 만드는 세련됨. 지금 독립 출판은 자유파행(自由爬行) 중이다.

그림 2. 『우리, 독립출판』(2016년)과 『우리, 독립출판 2』(2019년) 사이의 3년 동안 독립 출판은 장르의 다양화, 기존 출판과의 협업, 사회적 반향에 이은 베스트셀러 진입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겨났다.

자유와 자율. 독립 출판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 기성 출판과 비교해 어쩔 수 없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구조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독립 출판을 이야기하는 이유다. 장르와 형식이 다를 뿐, 거의 모든 독립 출판의 메시지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다. 나는 독립 출판의 흐름에서 우리의 현실이 실제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세상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말과 말이 아닌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모두 말이 아니다. 행복, 평화, 정의, 사랑, 쾌락, 부, 권력……. 우리는 말을 통해 생각, 느낌, 감정을 전하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축적한다. 우리는 말을 통해 말이 아닌 것을 주고받고, 사고팔고, 소유 여부를 정한다.

말로 구성된 세계의 대표는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의, 인터넷에 의한, 인터넷을 위한 시대다. 인터넷은 계급, 소속, 세대, 사회, 취미 등 공동체의 인간관계를 더 깊게 한다(고 여겨진다).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자신이 의도한 정보를 축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검색하려고 하면 구글이 미리 예측해 검색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검색한다고 여기지만, 사실 구글이 취사선택한 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한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접하는 사람은 자기 언어에 갇힌 인간이 되고 만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한 타자(他者)가 규정한 세계 안에서 생각할 뿐이다. 그렇다면 그 통제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로지 하나. 구글이 예측할 수 없는 말을 검색하는 것이다.

일본의 1인출판사 '겐론'을 운영하는 현대 사상가 아즈마 히로키는 저서 『약한 연결』에서 이렇게 말한다.
"'장소'를 바꿔라!" 그는 말이 아닌 것을 향해, 언어 외부로 떠날 것을 요청한다.
같은 인간이라도 다른 장소에서 구글을 열면 다른 말로 검색을 하게 된다. 거기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가 열린다. 한 번뿐인 인생을 나만의 인생으로 만들고 싶다면 환경을 의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곧 신체의 이동, 여행, 약한 연결이다.
우리의 삶은 '강한 유대관계/약한 유대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강한 인간관계는 사람을 익숙한 공간에 고정시키고, 공동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강한 유대관계가 주류인 사회에서는 전형적인 인간이 양산된다. 그러나 약한 유대관계는 사람에게 뜻밖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공동체 밖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강한 유대관계로 이루어진 인생, 계획적이고 일사불란한 인생, 우연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안정된 인생, 통계적으로 질서 지워진 인생. 이런 삶을 벗어나 '우연'과 해후할 수 있는, 통계에 환원되지 않는 요소를 삶에 도입해야 한다. 그 결정적 계기가 '관광'에 있다. 관광은 인생에 우연을 가져오는 계기, 통계적 전형성에 소음(노이즈)을 끼워 넣는 계기가 된다.

사람들은 현실의 인간관계는 강하고, 인터넷은 얕고 넓은 약한 유대관계를 만드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인터넷은 강한 유대관계를 더 강하게 만드는 미디어이다. SNS를 떠올

려보라! 약한 유대관계는 '노이즈'로 가득하다. 그 노이즈가 기회다. 그러나 인터넷은 노이즈를 배제하는 기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약한 유대관계를, 우연한 만남을 찾아야 할까? 바로 현실이다. 신체의 이동이고, 여행이다.

의식은 환경의 산물이다. 말도 환경의 산물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원한다면 말을 낳는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몸을 미지의 환경에 두었을 때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그것이 새로운 검색어, 즉 새로운 의식을 갖게 한다. '약한 현실'이 있어야 인터넷의 강함을 활용할 수 있다. 환경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 자신이 놓인 환경을 자기 의지로 부수고 바꾸어가는 것, 구글이 주는 검색어를 의도적으로 배반하는 것, 환경이 요구하는 자신의 모습에 정기적으로 노이즈(noise)를 끼워 넣는 것.

나는 독립 출판의 흐름에서 강한 연결을 강요하는 현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어떤 작은 욕망을 발견한다. 기존 출판, 미디어가 강요하는 검색어로부터 벗어나기, 전문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기. 나만의 생각으로 말이 아닌 것에 주목해 나의 글을 쓰는 것. 독립 출판은 나의 인생에 '노이즈'를 끼워 넣는 '약한 연결'의 또 다른 실천이다.

2019 독서콘퍼런스

2019 READING CONFERENCE

장·노년층의 쓰기와 읽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

주제발표 3

오선경

성공독서코칭센터 대표

초고령 사회, 장 · 노년층

노인

: 65세 이상(UN 기준)

: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국제노년학, 노인의학회, 1951)

: 실버, 어르신, 시니어, 뉴실버,
뉴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꿈꾸는 청춘, 은빛 청춘, etc

UN

: 노인 –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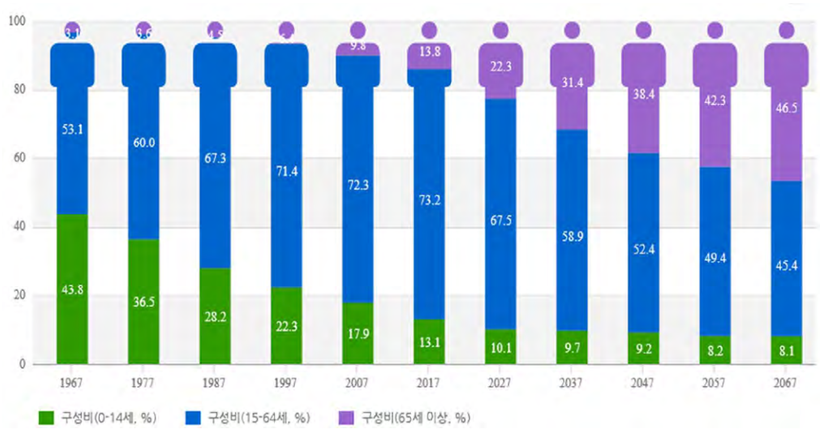
: 65세 이상 인구 14% 고령 사회

: 65에 이상 인구 20%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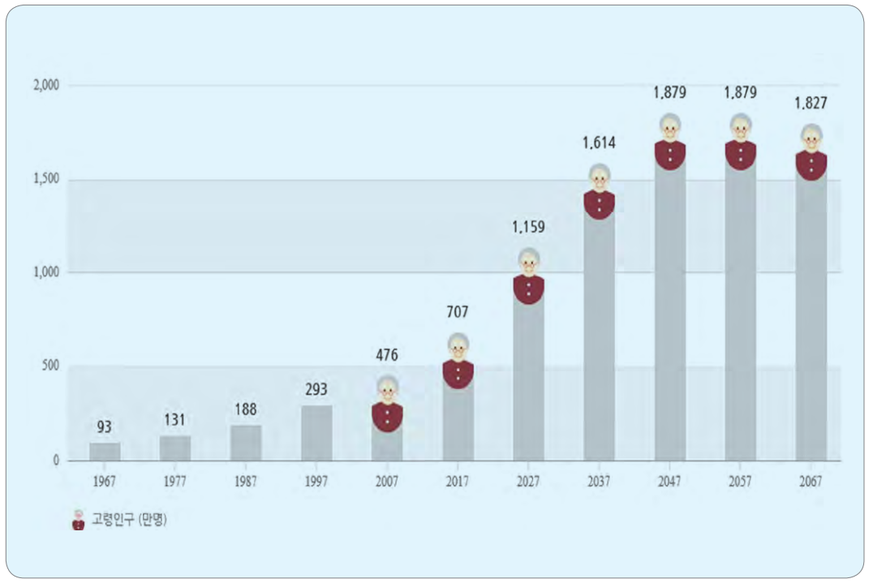
: 2017년 13.8% ~ 2018년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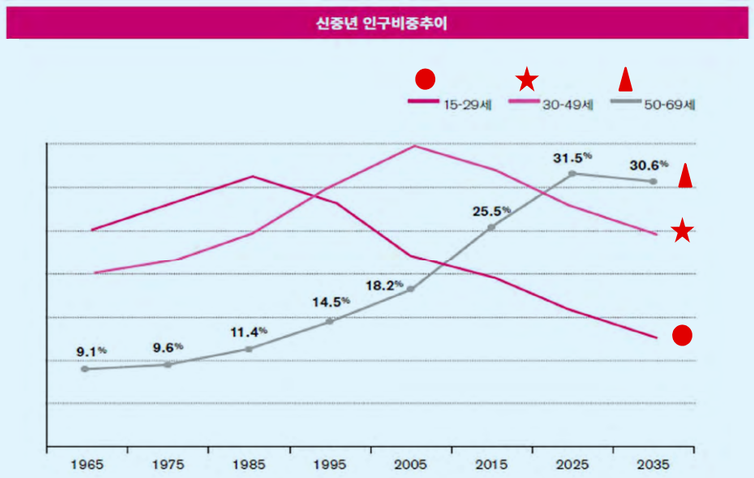
(2025년 20% 도달 예측)



- 2017년 현재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전체인구의 73.2%(3,757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8%(707만명)

(통계청: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kosis.kr/visual/populationKorea/index/index.do?mb=N)





초고령 사회, 장 · 노년층의 변화

- 65세 이상 고령인구

  (2017년 707만 명, 2025년 1,000만 명 이상, 2050년 1,901만 명까지 증가 후, 감소할 전망)

- 고령인구 구성비

  (2017년 13.8%, 빠르게 증가,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 초과 전망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세계보건기구 WHO: 55세 이상

  – 고령자(55세 이상)

  – 베이비부머 세대 (한국전쟁 이후 출생, 1955~1963)

  – 5060 세대, 50플러스(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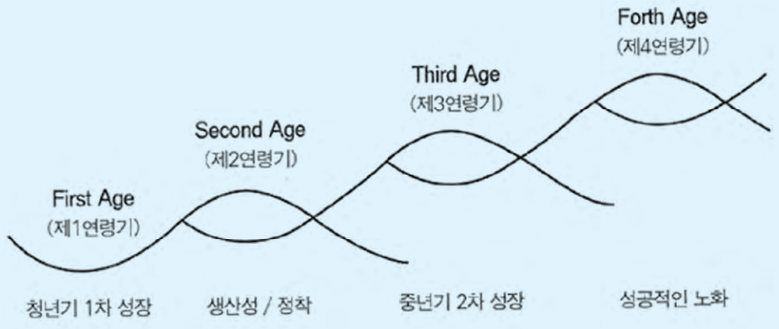
  – 신중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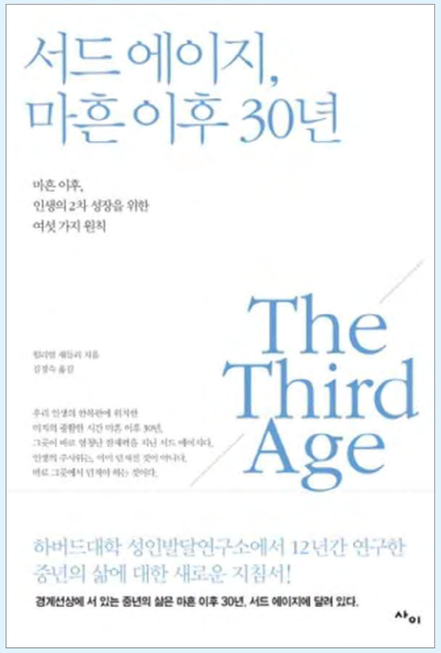
  :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나이에 자유롭게 관계를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고
  사회활동은 끝나가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렵더라도 도전적인 여가생활을 즐기고
  젊지 않아도 영정적으로 소비할 수 아는 사람

  – 낀 세대(X) 깬 세대(O) / 서울대 소비트렌트분석센터

윌리엄 새들러(William A Sadler/ 하버드 성인발달연구소)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사이/2015]





윌리엄 새들러

(William A Sadler/ 하버드 성인발달연구소)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사이/2015]

정체성 확립

일과 여가활동

현실과 이상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

성찰과 실행

자유와 관계

변화 추세

사회적 존경

원로, 조언자

권위

수동적

사회적 배려, 복지 대상

의존, 소외

우울

저학력

자기주도적, 독립적

고학력, 평생교육

다양한 취미, 문화 소비

참여적

디지털 리터러시

일자리 경쟁 대상

꼰대

간섭, 잔소리

1991년 UN총회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 **노인을 위한 권리**
- 독립(Independence)
- 참여(Paticipation)
- 보호(Care)
- 자아실현(Self-fulfillment)
- 존엄(Dignity)

· **호모 헌드레드 시대** – 여유, 취미 생활, 개인적, 독립적, 노후준비

나이듦과 함께 오는 상실

건강

인지

정서적 지지

사회적 역할

공동체 활동 etc

취미활동, 건강에 집중된 노인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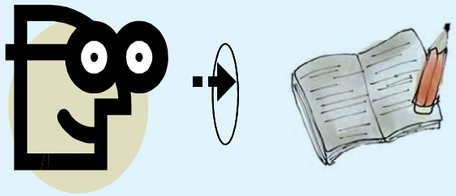
–〉 정신적, 정서적 측면 노인서비스로의 요구

–〉 자발적 참여 (더불어 장노년층의 쓰기 활동 증대)

장 · 노년층 쓰기 – **누가 쓰는가**

기존 전문 작가, 저자
– 창작자

– 분야별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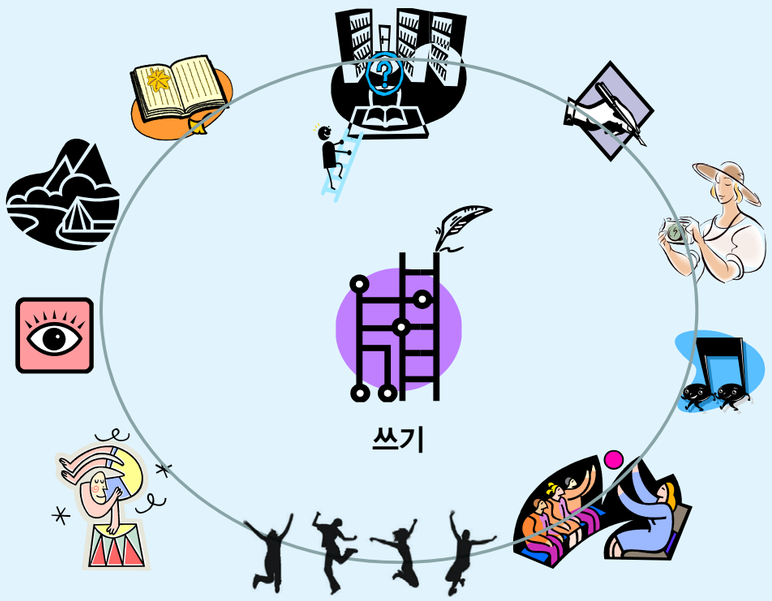
새로운 작가, 저자 집단 등장
– 문해교육 이수자

– 은퇴자

– 작가로 새로운 출발(혹은 겸직)

– 인생 회고 (개인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장 · 노년층 쓰기 – **무엇을 쓰는가**



장 · 노년층 쓰기 – **어떤 형식, 어떻게 쓰는가**

– 그림, 사진

– 시

– 각종 에세이

– 자기개발

– 동인지

– 기록물(가족, 지역, 시대, 문화 등)

– 자서전

– 일기

– 다양한 주제 독립출판물

– 만화 etc

장 · 노년층 쓰기 – **어떤 형식, 어떻게 쓰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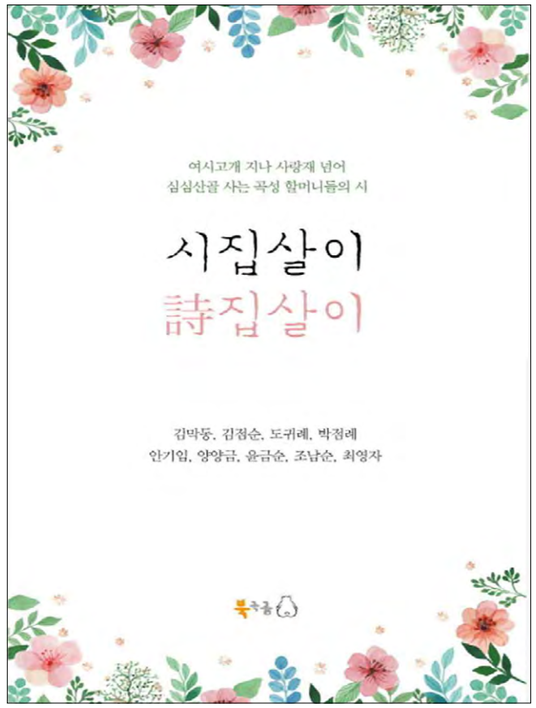
- 본인 직접 집필
- 본인 구술, 작가 집필
- 본인 구술, 자녀 집필
-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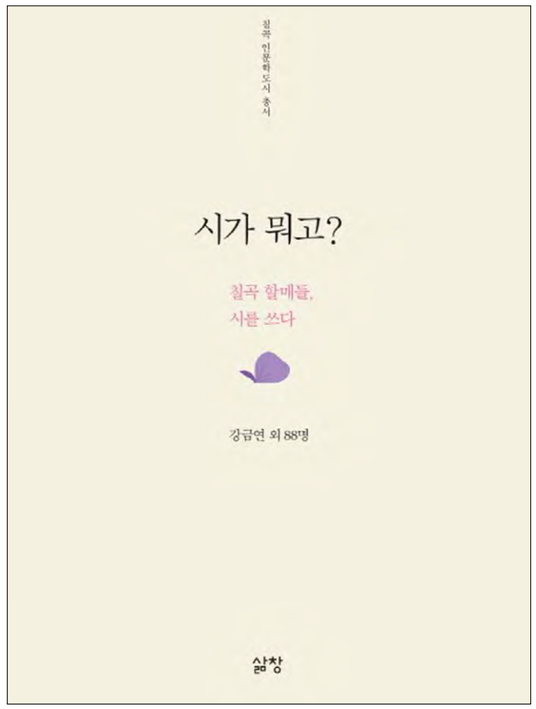
- 개인적 집필, 연구
- 공동 집필
- 교육 과정, 결과물
- 문화예술활동
- etc

- 종이책
- SNS
- 유투브 등 개인 채널
- etc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여든 앞에 글과 그림을 배운 순천 할머니들의 그림일기
권정자 김덕례 김명남 김영분 김유례 김정자 라양임 배연자 손경례 송영순
안안심 양순례 이정순 임순남 임영례 장선자 정오덕 하순자 한경자 황지심

한글 교실에서 만난 시와 치유, 꿈에 관한 이야기
팔순에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 박재영 지음 •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배우니 행복합니다."


여시고개 지나 사랑재 넘어
심심산골 사는 곡성 할머니들의 시
시집살이
詩집살이
김막동, 김점순, 도귀례, 박점례
안기임, 양양금, 윤금순, 조남순, 최영자


칠곡 인문학 도시 총서
시가 뭐고?
칠곡 할매들,
시를 쓰다
강금연 외 88명
삶창

눈이
사뿐
사뿐
오네
글 · 그림 김학동, 김점순, 박점례, 안기임,
양양금, 윤금순, 최영자
북수동

고향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림으로 들려주는 할머니의 이야기
이태인 그림책
고동

돌아보니
삶은 아름다웠더라
모든 어른 아이에게 띄우는
노부부의 그림편지
이한재 그림
안경아 글
전 세계 35만 팔로워가 사랑한 인스타그램 @drawings_for_my_grandchildren
"너희가 커서 이 책을 읽을 때쯤 난 이 세상에 없겠지만
너희를 위해 이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BBC,NBC,
〈가디언〉이 주목한
화제의 인물!
수오서재

아흔일곱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옥남 쓰

장 · 노년층 쓰기 – **무엇을 쓰는가**

꿈꾸는청춘예술대학, 문화글짱되기프로젝트,

동인지, 꿈청+U

'잠들지 않는 이야기/ 참전용사 구술, 작가 집필 협업 (국민일보 2019-03-26 19:10)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76545&code=61122013&sid1=i

장 · 노년층 쓰기 – **S · E · N · I · O · R**

S sympathy 공감 /sensitive 감성 /self-efficiency 자기효능감

E enjoy 향유 /experience 경험 /expert 전문적

N networking 연결 /needs 욕구 /new 새로운

I innovation 혁신 /identity 정체성 / interest 흥미

O opportunity 기회 /objet 오브제 /ordinary 보통의, 일상적

R relationship 관계성 /recovery 회복 /reading 읽기

장 · 노년층의 쓰기, 읽기

〈 두정엽 〉
감각
계산
공간적 사고

〈전두엽〉
판단력, 집중력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능

〈후두엽〉
시각 담당

〈측두엽〉
청각
언어
기억과 감정

장 · 노년층의 쓰기, 읽기

'앞쪽형 인간'이 되려면 (출처:앞쪽형 인간/허원미디어)

1. TV를 끄고 신문이나 책을 읽어라.
2. 읽기보다는 써라.
3. 듣기보다는 발표를 하라.
4. 외국어나 수화를 배워라. (새로운 언어)
5. 평소 적절한 단어를 찾아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라.
6. 글쓰기, 그림그리기, 조립하기 등 창작 활동을 하라.
7. 평소 시간 관리를 하라.
8. 사소한 일이라도, 틀리든 맞든 하나를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라.
9. 논리적인 사고를 하라.
10. 예측하고 계획하는 습관을 들여라.

초고령 사회, 장 · 노년층의 읽기

사회적 능력

- 내러티브 소설을 자주 접하는 사람이 정신적 추론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설명적 비소설을 접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음

- 50세 이상 미국인 3,635명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연령, 성별, 인종, 교육 수준, 자산, 혼인 여부, 우울증 여부, 건강 자가 진단, 동반 질환 유무 등의 요인은 통제한 결과입니다. (Bavishi et al., 2016)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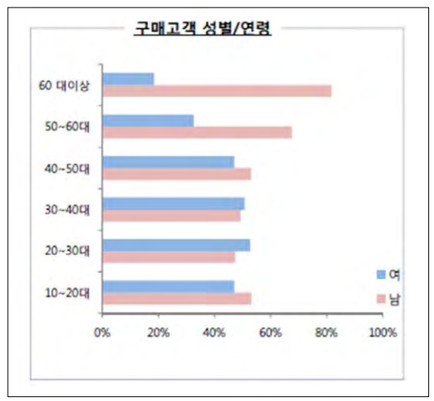
- 남녀 모두 12년 이상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이 20% 낮게 나왔습니다.
- 독서의 이점은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면서 얻는 그것보다 더 컸습니다.

장 · 노년층의 읽기(출처: 교보문고, 2018년 리뷰)

'앞쪽형 인간'이 되려면 (출처:앞쪽형 인간/허원미디어)

1. TV를 끄고 신문이나 책을 읽어라.
2. 읽기보다는 써라.
3. 듣기보다는 발표를 하라.
4. 외국어나 수화를 배워라. (새로운 언어)
5. 평소 적절한 단어를 찾아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라.
6. 글쓰기, 그림그리기, 조립하기 등 창작 활동을 하라.
7. 평소 시간 관리를 하라.
8. 사소한 일이라도, 틀리든 맞든 하나를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라.
9. 논리적인 사고를 하라.
10. 예측하고 계획하는 습관을 들여라.

초고령 사회, 장 · 노년층의 읽기



60대 이상 남성고객(38%), 광화문점/강남점 매출이 전체의 30%

전년대비 40–60대 구매 증가(주요 구매 독자 연령 장노년층으로 이동 중)

유동하는 모바일 사용자

젊은 독자, 교양있는 중장년층

주제와 취향의 세분화

장 · 노년층의 읽기(출처: https://www.data4library.kr)

9 백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75세

50 (어차피 살 거라면) 백 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57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 :현명하고 우아한 인생 후반을 위한 8번의 지적 대화

84 백년을 살아보니 :대활자본 특별판

105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밌어지네요

109 노인은 없다 :나이 들수록 더 발전하고, 더 강해지는 능력을 발견하다

122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152 70세 사망법안,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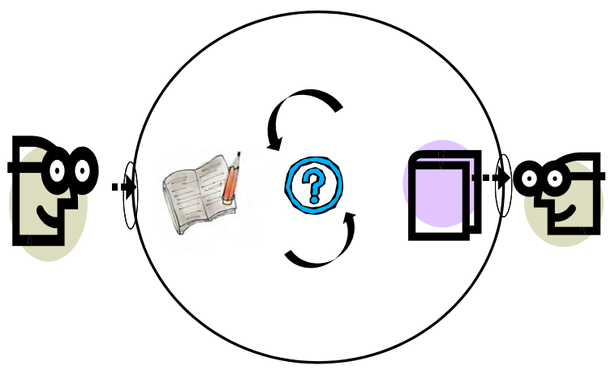
데이터 수집현황 (2019.08.19 현재)

도서관	844개관
장서	84,349,719건
회원	24,375,685명
대출	1,205,776,509건

2019년 5월~8월
60대 대출 상위 205건 중

장 · 노년층의 쓰기와 읽기, 읽기와 쓰기

읽기가 실제적 쓰기로 연결되는가?



쓰기가 실제적 읽기로 연결되는가?

장 · 노년층의 쓰기와 읽기, 읽기와 쓰기

함께 생각해봐야 할 이슈

행위자 요인 : 장 · 노년층의 동기 유발, 읽기와 쓰기의 이유와 필요성 탐색
비자발적 저자, 독자/ 자발적 저자, 독자 등 층위 분석

자료 요인 : 장 · 노년층의 관심사, 흥미, 형식, 다양성 등
창작 독려, 뉴실버 산업으로서의 가능성

환경 요인 : 장 · 노년층의 쓰기와 읽기의 순환적 구조 지원 시스템 구축
장 · 노년층 책문화 공간 및 전담 서비스 요구 반영

과정 요인 : 장 · 노년층의 쓰기와 읽기의 순환적 향유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또래간 티칭 및 코칭 시스템 등

정책 요인 : 장 · 노년층의 쓰기와 읽기 지원 정책
(독자, 도서관, 교육, 출판, 서점, 문화예술, 전문가 등 연결)

읽기, 쓰기와 함께 하는 인생 2막

〈 오선경 성공독서코칭센터 대표 〉

1995년~2019 현재, 독서 및 문화콘텐츠 관련 민간 및 공공 영역

기획 · 연구개발 · 강의 · 운영, 컨설팅, 심사 등을 진행

제17회 독서문화상 국무총리표창 수상(2011 독서진흥유공)

교보문고 교육사업본부 선임연구원 역임(연구소 및 코칭센터) 등…

독서문화기획자, 독서교육전문가, 전문상담사, 중등2급정교사(일본어)

MBTI 일반강사, STRONG 진로직업상담전문가, 아동미술실기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독서교육)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콘텐츠-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수료(문화콘텐츠)

Email / reading4u@naver.com

Instagram / @how2read

MEMO

MEMO